

여자가 더 웃겨...예능 속 '우먼파워'

tvN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
MZ세대 여성 당돌 매력 담아
엄정화·이효리 '댄스가스 유랑단'
센 언니들 전국 돌며 재미·감동



tvN '뽕뽕 지구오락실'

22년차 PD 나영석(47)이 "유진이랑 영지는 팔뻐, 은지랑 미미는 조카뻐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자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이은지(31)가 대뜸 말한다. "근데 어떡하냐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MZ세대 여성 출연진의 당돌한 매력을 담아낸 tvN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이하 '지락실')이 시즌2로 돌아왔다. 그새 더 친해진 4인방은 넘치는 흥과 끼를 발산하고, 나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한참 어린 출연진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지친 모습으로 웃음을 안긴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당차고 센 여성 출연진을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시청자들을 찾는다.

지난 12일 처음 방송된 '지락실'은 나 PD를 거리낌 없이 '형'이라고 부르며 찼찼매게 만드는 코미디언 이은지, 그룹 오마이걸 미미, 아이브 안유진, 가수 이영지가 주인공이다. 제작진과 출연진의 수평적인 케미(호흡)로 큰 사랑을 받았던 '지락실'은 벌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락실' 멤버들이 아이브 신곡 '아이엠'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은 이영지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 9일 만에 조회수 11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춤추는 출연진을 멍하니 지켜보는 나 PD를 클로즈업하면서 끝나는데, '제작진 단테로 기 빨린 모습 너무 웃기다', '이번엔 얼마나 시달리고 오셨을지 기대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오는 25일 처음 방송되는 tvN '댄스가스 유랑단'은 대한민국 여자 댄스 가수 계보를 잇는 '센 언

니'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를 모은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팬들을 만나고, 각기 다른 주제로 솔로 무대를 펼친다. '리듬 속의 그 춤을', '배반의 장미', '텐미닛(10 Minutes)' 등 각자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히트곡을 다시 부르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옛 추억이 생각나 아련해진다", "예고편만 봐도 벌써 감동이다", "한때 톱을 찍었던 '영원한 퀸'들의 무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30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예능 '사이렌: 불의 섬'은 여성 24명이 팀을 이뤄 미지의 섬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이다. 출연진은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스타트 배우, 군인, 운동선수 등 직업군별로 총 6개 팀으로 나누어진다. 매일 뜨거운 불 속에서 일하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자책하며 산다는

소방관, 총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라는 경호원, 갈비뼈 부러진 것쯤은 부상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스타트 배우 등이 각자 직업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친다.

여성들이 안방극장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 한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올해 방송된 드라마 '대행사', '더 글로리', '종이달', '퀸메이커', '닥터 차정숙' 등은 모두 여성 원톱 드라마였고, 전도연이 킬러로 변신한 넷플릭스 영화 '김복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여성 연예인들은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꿰찬 데 이어 예능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여성 서사물이 장르를 불문하고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이 지상파 방송사에 있었지만, 소수의 취향을 공략하는 OTT(동영상 스트리밍)의 등장으로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 68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피아노 입상자	9 이가윤(전주예술고3)	120 박서은(대반초5)
〈심사위원〉 구재향(호신대 교수) 신수정(경상대 교수) 신수경(전남대 교수) 조성경(전남과학대 교수) 허정화(순천대 교수)	10 이승진(전남예술고3) 13 최유빈(광주경신여자고3) ▲ 동상 5 황수아(전남예술고3) 7 조영효(송원여자고3)	127 조서우(조봉초5) 131 김지후(군산초5) 134 조은서(군산초6) 135 오상교(광주송정초6) 170 김현정(화계초6)
◇ 피아노 고등부 1.2학년 ▲ 금상 4 정현주(2007년생) 6 정도영(광주예술고2) 18 홍지원(광주예술고2) 19 진해린(전남예술고2) 22 박기인(전남예술고1) 24 김채연(전남예술고1) 26 권태현(전남예술고2) ▲ 은상 10 김바른(전남예술고2) 20 최소정(군산영광여자고1) 23 최지우(문정여자고2) ▲ 동상 2 함조세핀(광주예술고1) 3 안진(살레시오여자고2) 7 서지후(2007년생) 9 임하연(2007년생) 21 홍나영(전주예술고2)	◇ 피아노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157 장유림(목포부주초6) ▲ 금상 4 박시현(목포영산초5) 7 최윤정(목포영산초6) 9 양민준(전주인봉초5) 12 김에스터(목포국제기독교학교5) 15 이여준(목포항도초6) 18 윤효명(목포국제기독교학교6) 21 김보민(목포항도초5) 22 유은성(태봉초6) 52 김서연(빛누리초6) 79 황혜은(지도초6) 88 안하은(일동초5) 96 서지원(광주학운초5) 97 차예슬(정음서초5) 109 함다빛(문흥초6) 130 이해인(목포용해초6) 154 김사랑(한울초6) ▲ 은상 2 양지수(전주인봉초5) 5 김주하(전주인봉초5) 17 김다인(태봉초5) 24 박봄(태봉초6) 29 주아인(웅천초6) 38 유리아(광주효덕초6) 41 광다예(신창초6) 42 안건희(훈천초5) 43 이시은(라온초6) 47 한서윤(매곡초5) 54 김채연(문산초5) 71 장예서(하백초5) 72 박혜림(광양마동초5) 80 이예준(조봉초5) 90 박세민(무등초6) 112 강윤결(볼로초5)	▲ 동상 1 이다인(겨자씨크리스찬스쿨5) 11 전현도(광림초5) 16 이재은(본촌초6) 20 송단아(광주교대광주부설초5) 26 이소연(여수신월초5) 32 김주하(광주학운초5) 33 문소영(웅천초5) 37 정하빛(신창초6) 39 박찬송(문정초5) 46 최하연(빛누리초6) 49 차아빈(빛누리초5) 57 서수인(은빛초6) 60 조유현(광주송원초6) 61 윤태원(은빛초5) 62 여은솔(금부초5) 63 김은율(목포육암초6) 64 임유민(은빛초5) 67 정하윤(영광초6) 70 봉현진(문우초5) 82 강예은(월광기독교학교5) 84 유나경(신창초6) 100 유현준(웅천초5) 104 박희원(웅천초6) 106 이재연(살레시오초6) 107 변하영(만호초5) 116 한예진(조봉초6) 117 노다해(대반초5) 119 김도희(장덕초5) 123 문시후(영천초5) 137 최진솔(군산초6) 156 박인하(산정초5) 167 최지아(화계초6) 169 손하윤(효동초5)
◇ 피아노 고등부 3학년 ▲ 최고상 6 최현호(광주예술고3) ▲ 금상 1 김희영(전남예술고3) 2 박주은(구례고3) 11 양재현(광주예술고3) 12 김문(광주고3) 14 장호(2005년생) 15 임예지(목포제일여자고3) 16 김민준(전남예술고3) ▲ 은상 3 김시현(전남예술고3) 4 류수빈(살레시오여자고3) 8 이민교(광주예술고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고양이와 가족이 된다는 것

정진홍 의사시인 수필집 '초보 고양이와 집사 이야기' 펴내



마지막으로 4부 '우리집 고양이는 바보'는 변덕스런 입맛, 우리집 고양이는 잠보, 고양이의 거울 등의 글이 게재돼 있다.

이렇듯 책에는 고양이 집사로서 경험담과 다른 고양이 애호가들의 일화도 담겨 있어 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자는 행복한 고양이 집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정진홍 시인은 "제 목표는 우리 모두 고양이를 사랑스럽고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고양이들은 그곳에서 잘 자라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희들아, 내 눈을 찬찬히 보거라. 짧지 않은 시간을 너희와 지내며 많은 위로와 감동을 나에게 안겨 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저희를 만나기 전에는 동물의 존재에 대해 흔들리는 생각은 물론이고 가치조차도 흐릿명당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나를 뉘우치고 다시금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고희성사와 같은 느낌의 글이다. 여기서 '너희'는 소아과 의사이자 시인인 정진홍의 고양이 '로마'와 '쫄피'를 말한다.

정진홍 의사시인이 입양된 고양이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초보 고양이와 집사 이야기'(반달 뜨는 꽃섬)를 펴냈다.

저자는 책에 입양에서부터 고양이의 행동 이해, 일반적인 건강 문제 해결까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자신과 다른 고양이 집사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조언과 팁까지 책에 수록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새로운 가족'은 이름짓기, 맹수 놀이, 처음으로 대화하다 등을 제목으로 한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2부 '소통의 장이 되다'는 고양이의 개성, 스마트 폰 속의 고양이를, 잠자는 고양이에 관한 단상이, 3부 '고양이와의 대화기법'에서는 먹이 경쟁전, 고양이들도 고독하다, 고양이의 전생 등 흥미로운 소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한국 영화 '부진의 늪'

관객 수, 석 달째 100만명대...점유율 24.8%

한국 영화 관객 수가 석 달 연속 100만명대에 머무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15일 발표한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73만 명으로 3개월 연속 200만명을 넘지 못했다.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24.8%에 그쳤다.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작년 동월(88만명)보다는 97.4%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동월 평균치(395만명)와 비교하면 43.8%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 영화 관객수는 524

만명으로 작년 동월(224만명)보다 133.7% 증가했고, 2017~2019년 동월 평균치(892만명)의 58.7%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흥행작 1~3위는 모두 외국 영화가 차지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184억원의 매출을 올려 1위였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존 워 4'(166억원)와 미국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77억원)가 각각 2위와 3위였다. 한국 영화 '리바운드'(62억원)와 '드림'(52억원)은 4위와 5위였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